Global Market Report 21-026

대한민국의 꿈을 수출합니다 kotra

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



Global Market Report

kotra
Korea Trade-Investment Promotion Agency

CONTENTS

목 차

요 약

Ⅰ. ESG란? / 1

Ⅱ. 글로벌 투자자 및 기업의 ESG 추진동향 / 2

Ⅲ. 미국 · EU ESG 법제화 동향 / 6

6 가. 미국

12 나. EU

Ⅳ. 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 / 23

[첨 부] 1. 투자자 · 글로벌 기업 요구에 따른 ESG 경영 강화 사례

2. 기존 사업재편 및 신규 사업기회를 발굴한 사례

3. ESG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자본으로 활용한 사례

요 약

□ 글로벌 자금시장 내 ESG가 新표준으로 자리매김

○ '20년 ESG 투자규모는 35.3조 달러로, '18년 대비 15% 성장

* (지역별) 미국 17조 달러, 유럽 12조 달러, 일본 2.9조 달러

○ **미국·EU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선언하면서 협력업체 전체로 ESG 경영기조 확산 견인**

* (애플) 공급업체 대상 애플에 납품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제조 요구

□ 국가 차원에서도 ESG 법제화 움직임 가시화

○ ESG 투자규모가 가장 큰 미국, EU를 중심으로 논의 활발

- 특히, EU에서 선도적으로 규제 도입추진

국가	주요 ESG 규제 동향
미국	· **'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,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공약 실현에 속도** - 키스톤 송유관 건설 허가 취소, 석유·천연가스 시추 신규허가 중단 및 연방정부 화석연료 직접 보조금 중단('21.2월, 행정명령) - **'30년 판매 신차 50%를 무공해차(ZEV)로 의무화 추진('21.8월, 행정명령)** · **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공식 검토계획 발표** (2021 USTR 통상아젠다) · SEC(증권거래위원회), **기후 리스크 정보공개 규칙 마련 중(現 기업 자율선택)** · **상원, 중국 신장 제품 수입금지안 통과('21.7월)** · 노동조항이 강화된 USMCA를 본뜬 FTA 추진 가능성 · 나스닥, SEC에 상장회사 이사진 다양성 증진 의무화 제안서 제출('20.10월)
EU	· **기후 대응법안 패키지(Fit for 55 Package)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초안, '35년부터 연내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안 발표('21.7월)** · **기업 공급망 실사법안 추진 ('21.3Q 중 초안 발표 계획)** · 친환경 배터리 규제안 발표('20.12월) · **유럽 금융기관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(SDFR) 발효('21.3월)** - 금융기관이 투자자들에게 기업수준에서의 지속가능성과 상품 수준에서의 비재무적 금융정보 공시 의무화 · **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시행 ('17)** - EU 역내 대기업의 사회 및 환경영향을 비재무제표를 통해 공개의무화 *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수정안 제출('21.4월) · **EU 분류체계 규정을 통해 기업의 녹색경제 활동여부 판단기준 수립('20)**

□ 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

○ 조사대상국 : 미국, 캐나다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일본 등 6개국
- 31개 기업의 ESG 대응 사례를 조사 후, 4가지 대응 유형으로 분류

❶ 투자자·글로벌 기업 요구에 따른 ESG 경영 강화

구분	국가	기업명(주요사업)	추진 내역
E	미국	세븐스 제너레이션 (생활용품)	· 아마존 벤더로서 권장사항인 기후 서약(Climate Pledge)* 캠페인 활동에 동참 * '4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목표 · 캠페인 일환으로 아마존 플랫폼 내 신설된 지속가능성 인증제품 전용 코너인 'Climate Pledge Friendly'에도 55개 제품 등록·판매
	일본	세븐&아이 홀딩스 (세븐일레븐 포함 편의점 체인 운영)	· 미국 편의점 점유율 3위인 '스피드 웨이*' 인수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'탈탄소'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 제기 * 스피드 웨이 : 주유시설을 같이 보유한 미 편의점 체인 · '50년까지 일본 내 점포 운영에 따른 CO_2배출량 제로 목표 - '21년 2분기부터 임원 급여에 CO_2 감축량을 반영하여, 2% 감축시 5% 인상, 2%이상 증가시 10% 인하
S	일본	후지 오일 (식료품)	· 원료조달 카카오 농장에서 '30년까지 아동노동 근절 추진 · 팜유 생산 밸류체인 100% 관리, 고충처리 메커니즘 도입
G	미국	HP(컴퓨터 HW)	· 미국 내 여성, 소수민족 소유기업에 10억 달러 투자

❷ 기존 사업재편 및 신규 사업기회 발굴

- **오일메이저·내연기관차·전력기업은** 기존 화석연료 사업 비중을 감축하면서, **저탄소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거나 주력업종 전환**

국가	기업명	추진내역
영국·네덜란드	쉘 (Shell)	· **'석유·가스' 회사가 아니라 '에너지 전환회사'로써, 연간 20~30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** - 투자금 중 80%를 전력 부문 집중하며, **'전기회사'로 탈바꿈 추진** * 영국 전기가스 공급사인 First Utility와 전기차 충전업체 New Motion 인수('17) · 석유와 석탄의 비중을 줄이면서,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에 투자 집중
미국	제너럴모터스 (GM)	· '3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-'20년부터 5년간 전기차 관련 제품 개발에 270달러 투입 · '35년까지 세계 공장을 100% 재생에너지로 가동
독일	RWE *독일 최대 에너지업체	· 독일 정부의 탈석탄정책('20)에 부응하기 위해, **'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생산하겠다고 발표** - 풍력 발전,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솔루션 집중투자 계획 · 풍력·태양광 프로젝트 48개 추진 중 : 풍력 44개(해상11,육상33), 태양광 4개

-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면서 신규 사업 기회까지 발굴

국가	기업명	추진내역
일본	윌스테이지 (Willstage)	· **사회적과제 해결을 위한 저리 융자를 받아, 독자적인 수질 정화기술을 응용하여 육상 양식 기술개발** - 수조의 물을 교체하지 않고도 1년간 양식 가능 * 현재 '독(毒) 없는' 복어 약 2,000마리 시험양식 중

❸ ESG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스타트업 성장자본으로 활용

국가	기업명	자본유치 내역
미국	바이탈 팜즈 (Vital Farms)	· **(주력사업) 동물복지 계란, 유제품 판매** - '깨어있는 자본주의'를 추구하며 **직접 경영하는 농장확대 보다는 225개의 소규모 가족 농장(동물복지농장)과 협력을 통해 판매 제품 생산** · **(투자유치) 대규모 투자 유치보다 필요한 자본을 조금씩 조달한다는 전략하에 1~2년 주기로 임팩트 자본유치** - SJF Ventures에서 $2.3M('13), Arborview Capital에서 $2.25M('14), Sunrise Strategic Partners 등으로부터 $11.1M ('17) 등 유치 - **'20년 초에는 IPO(기업공개상장)으로 $2억 유치에 성공**
캐나다	카본큐어 테크놀로지 (Carbon Cure Technology)	· (주력사업) 포집 CO_2를 콘크리트 제조 공정에 넣어 콘크리트 강도 제고 및 대기에서 CO_2를 영구 감축 · (자본유치) 클린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2150, 아마존 기후서약 펀드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1,100만 달러 유치

❹ (금융권) 기업고객 대상 ESG 경영 인센티브(대출 우대금리 등) 제공

국가	금융사	주요 ESG 인센티브 내용
영국	LLOYDS Bank	· **Clean Growth Financing Initiative** - 그린 프로젝트용 대출시 25bp 우대금리 적용
미국	HSBC USA	· **지속가능성 연계 대출프로그램(Sustainability Linked Loan) 운영** - 지속가능성 실적 목표*(sustainability performance targets)를 미리 정하고, 목표 도달시 대출 우대금리 적용 * 온실가스 감축량, 신재생에너지 사용량, 종업원 다양성 등
프랑스	BNP Paribas	· **ESG 평가에 따라 대출·투자 장려 vs. 배제분야로 구분** - 장려분야(신재생에너지 기업 등) : 우대 금리대출 등 특별 프로그램 마련 - 엄격심사 or 배제 분야 : 무기생산, 팜오일생산/유통, 펄프 생산 및 벌목, 석탄화력 생산, 광산 채굴 등

Ⅰ. ESG란?

□ 환경(Environment), 사회(Society) 및 지배구조(Governance)의 앞 글자를 딴 용어로 기업의 非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통칭

○ 재무제표나 현금흐름과 같은 금전적 이익 외에 **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해 투자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등장한 기준**

< ESG 항목별 주요 요소 >

환경(E)	사회(S)	지배구조(G)
• 기후변화	• 인권	• 뇌물 및 부패
• 자원고갈	• 현대노예	• 경영진 보상
• 물	• 아동근로	• 이사회 다양성 및 구조
• 공해	• 근로조건	• 정치적 로비 및 기부
• 삼림파괴	• 근로자 관계	• 조세전략

자료원 :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

○ **글로벌 금융회사·투자은행·신평사 중심으로 상품개발 및 투자 의사결정에 ESG를 적극 반영 중**

- 세계 최대 자산관리기업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투자자들과 기업 CEO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“고 선언 (’20)

□ **글로벌 ESG 경영 확산에 따라, 우리 수출기업에 新무역장벽화 우려**

○ 글로벌 자금 시장 내 ESG가 新표준으로 자리매김하면서, **미국·EU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선언하면서 협력업체 전체로 ESG 경영기조가 확산 추세**

○ 기업의 선제적인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, **국가차원에서도 제도화 움직임 활발**

- 각국의 그린딜과 친환경에너지 정책 도입까지 맞물리면서 업계 ESG 경영 확산 촉진

* EU에서는 ‘기업의 공급망 인권 및 환경실사 의무법안’ 추진 등

Ⅱ. 글로벌 투자자 및 기업의 ESG 추진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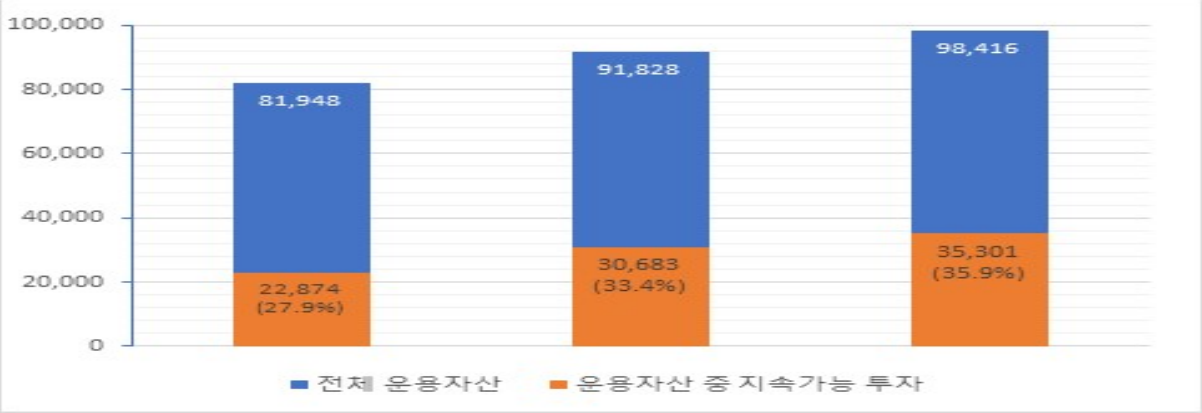
□ 글로벌 투자자의 ESG 투자 규모, 가파른 성장세 시현

○ **'20년 ESG 투자규모는 35.3조 달러로 '18년 대비 15% 성장**

- 지역별로는 **미국이 17조 달러로 가장 높았고, 유럽은 12조 달러,** 일본은 2.9조 달러를 투자

< 글로벌 운용자산 추이 ('16~'20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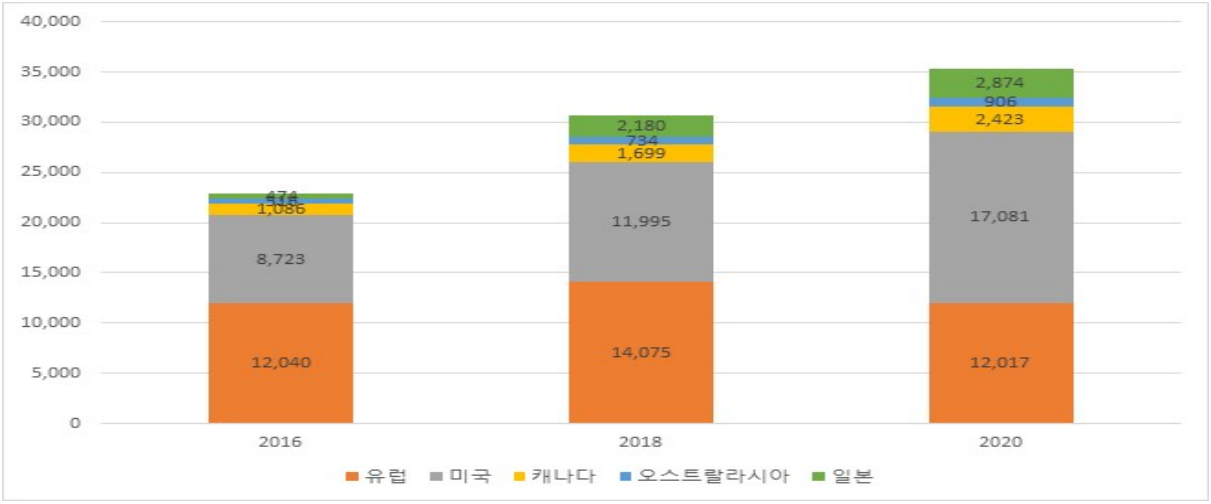
(단위 : 10억 달러)



자료원 : GSIA 2020

< 지역별 지속가능 투자자산 추이 ('16~'20) >

(단위 : 10억 달러)



자료원 : GSIA 2020

○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**투자기업 선정과정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 요소 반영 강화**

< 글로벌 투자자 ESG 관련 주요 투자정책 사례 >

투자자	ESG 관련 투자정책
블랙록 (BlackRock)	·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최우선 순위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지목 - 펀드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운용전략을 짜는 **액티브 펀드에 ESG 요소를 반영** - **지속가능회계기준 위원회와 재무 정보공개 권고사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영진에 대해서는 주주권 행사에 나섬.** * 포트폴리오 중 사업모델에 기후 위험 미반영 기업 244개 명단을 공개 (볼보에 대해 ESG 공시 미비를 이유로 이사회 의장 연임 반대) - **여성 이사가 2명 미만인 기업에는 투자 중단계획 발표('18)**
아문디 (Amundi)	· 회사 설립('10) 당시부터, **핵심투자 전략에 ESG 포함** - 대인지뢰 및 집속탄, 화학 및 생화학 무기 제작 및 유통 관련 기업, UN 'Global Compact' 10대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기업에 최저평가(G 등급) 자동 부여 - **'16년부터 매출액의 50% 이상이 석탄 생산에 의한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, '18년에는 기준(비율)을 25%로 상향적용, 총 매출의 50% 이상이 석탄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철회** - '18년부터 매출액의 10% 이상이 담배 생산 및 판매 관련된 기업은 E 등급을 초과하는 ESG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 - **'S(social)' 항목 평가 시 투자대상 기업 내의 인적 자본 구성 및 해당 기업이 연관된 보편적 인권 이슈를 엄격하게 평가** - 투자대상 기업의 임원과 직원 간 급여 격차를 평가에 반영 - 'Social Impact' 지수 도입: 1만 유로 투자 당 편익 수혜 인구 비율을 예측하여 투자대상 선정 시 활용
일본 연기금 (GPIF)	· **Positive Screening 필수적용** · 정보공개촉진, 평가방식의 개선 - ESG 평가 정밀도 향상을 위해 '기업측의 ESG정보공개 촉진'과 'ESG평가방식 개선여부'를 중점적으로 고려 - ESG평가방식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한편,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기업에게 피드백
노르웨이 연기금 (GPFG)	· **네거티브 스크리닝 중심의 ESG 투자 자리매김** - 운용자산 1조 달러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GPFG는 **술, 도박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마련** - 또한, '13~'15년에 걸쳐 **매출액의 30% 이상이 석탄 분야에서**

	창출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- 원유 가격에 따른 위험 경감을 위해 원유/가스 탐사와 개발업체 등에 대한 투자 중단 결정('19.3월) - 이외에도 아동 노동 등 인권 탄압 전쟁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 침해, 온실가스 배출, 부패 등 윤리적 기준에 어긋난 기업 제외 · 全 자산군 투자시 ESG 요소를 모두 고려한 가운데 특히 아동 노동, 수질관리, 기후변화 등 E와 S에서 3대 중점과제 제시 - G의 경우 주주로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강조 : '15년 11,562 건의 주주 총회에서 투표권 행사

□ 글로벌 기업 → 협력업체 전체로 ESG 경영기조 확산

○ (**E: 환경**) RE100*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**협력사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 증가**

*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%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리더십 이니셔티브 캠페인으로 참여기업은 '50년까지 기존 소비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필요 ('30년 60% → '40년 90% 이상)

- 계약서·협약서 등을 통한 명시적인 납품요건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

<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 대상 'E'관련 요구 사례 >

기업명	협력사 대상 요구사항
애플 (Apple)	· **공급업체 대상 애플에 납품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제조 요구** * 세계 11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100% 재생에너지로 제품 생산 ('21.4월 기준) · 청정에너지 포털이라는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까지 운영 중
BMW	· **'20년까지 풍력·바이오가스·태양광 등 자가 설비와 인증서 구매를 통해 100% 재생에너지원 전력 조달을 완료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에게도 이를 요구**
월마트 (Walmart)	· '30년까지 10억 톤의 CO_2를 감축하는게 목표(납품 협력업체의 탄소 절감량 포함)
홈디포 (Home Depot)	· 연간 2.1%씩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여, '35년까지 최종 50% 감축 계획 발표 - 협력사에 친환경적 사업에 동참 요구
마이크로소프트 (MS)	· **탄소 중립 달성에서 더 나아가 탄소 네거티브 달성 계획 발표('20.1월)** - '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 달성과 '50년까지 1975년 설립 이후 배출한 모든 CO_2 제거 목표를 수립하고, **협력사 대상 동참 요청**

자료원 : 기업별 발표내용, 언론보도자료 종합

○ (S: 사회) 코발트 채굴 관련 아동 노동착취 등 **불법노동, 인권침해 등을 타겟으로 한 규제 강화**

<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 대상 'S'관련 요구 사례 >

기업명	협력사 대상 요구사항
테슬라 (Tesla)	· 코발트 채굴과정에서 아동 노동 착취와 환경오염 문제가 논란 - 인권침해 및 불법채굴을 인지함에도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국제 권리변호사회로부터 '19년 피소 · '2019 임팩트 보고서'에서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**'코발트 프리' 배터리 개발 계획을 발표** - 테슬라 배터리에 니켈 함유량을 높이고 코발트 비중을 줄여나감으로써, 니켈배터리를 만드는 코발트 프리 지향
월마트 (Walmart)	· **인권 성명서(Human Rights Statement)를 발표하고, 협력사에도 준수요청** - 급여수준 보장,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, 차별금지 및 젠더평등 보장, 강제노동/아동노동 금지
H&M/ 유니클로/ 나이키	· **신장에서 생산한 면화 사용 금지('20)**

자료원 : 기업별 발표내용, 언론보도자료 종합

○ (G: 거버넌스) **협력업체에 대한 요구보다는 투자자 요구를 받아들여 자체으로 '다양성' 확대 및 경영진 보수와 ESG 성과연계 강화**

< 글로벌 기업의 'G' 강화 사례 >

기업명	'G'강화 추진내역
클로락스 (Clorox)	· **CEO와 CFO 보상을 온실가스배출 감축 및 플라스틱 포장재 감소 등과 연계('19)** - '30년까지 최초사용 플라스틱(virgin plastic) 포장재 및 섬유 50% 감축, '25년까지 모든 포장재 100% 재활용 혹은 재사용 목표 수립
넷플릭스 (Netflix)	· **'26년까지 격년제로 다양성 조사를 지속** · 다양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간 매년 2,000만 달러의 '창작발전기금'을 투자 예정
맥도날드 (McDonalds)	· **'25년 말까지 리더십, 선임 디렉터 이상의 직급에 여성 비중을 37% → 45%, 소수집단 비중을 29% → 35%로 높일 예정** - 다양성 성과 목표와 임원 보너스를 연계
스타벅스 (Starbucks)	· **'25년까지 흑인 및 소수인종 직원 채용 목표 30% 달성** - 경영진 보상과 연계

자료원 : 기업별 발표내용, 언론보도자료 종합

Ⅲ. 미국 · EU ESG 법제화 동향

※ ESG 법제화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조사

가 미 국

1 환경(Environment)

□ **'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**하고, 기후관련 특별조직과 신규 보직* 신설 및 **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공약 실현에 속도**

* 백악관 內 국내기후정책실(Office of Domestic Climate Policy)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특사(John Kerry) 및 전미 기후 고문(N'tl Climate Adviser, Gina McCarthy) 등 보직 신설

※ 바이든 대통령 에너지·기후 공약 주요내용
: ❶파리협정 재가입, ❷'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('25년까지 타겟 목표 수립) ❸2조 달러 규모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 확대, ❹화석연료 보조금 폐지, ❺가스 석유산업 공유지 임대 신규허가 금지, ❻키스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중단 등

○ **행정명령 주요내용**

* '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및 환경보호, 과학기술 복원' 행정명령(1.20.), '국내외 기후위기 대응' 행정명령(1.27.) 및 '클린 자동차·트럭 내 미국 리더십 강화' 행정명령(8.5.) 내용 중점 분석

❶ 기후변화 대응을 미국 외교·안보 정책의 핵심요소로 간주

- 美 국가정보국장(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)은 국가 경제·안보 관점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(120일 이내)

❷ 국제적 협의채널(G7,G20 등)을 통해 기후변화 아젠다 우선적 논의 추진

- 파리협약 재가입 및 이에 필요한 국가결정기여*(NDC :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) 목표수립 작업 착수

*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,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

- (참고사항) 기후 정상회의(4.22.)를 통해 미국은 '30년까지 '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0~52%를 감축하겠다고 국가결정기여 목표 발표

· NDC 목표 달성을 위해 백악관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바이든 정부의 '범정부적 접근방안(whole-of-government approach)' 발표

<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관련 '범정부적 접근방안' 발표내용 >

부문	주요 계획
탄소 중립 달성과 기후 변화 대비 모금	· '24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자금을 3배 증액하고, 관련 기구 예산 증액을 위한 국제 기후 재정 계획 신설 및 미국 주도의 기후회담 유치 지속
에너지 시스템 변화	· 화석연료 주요 생산국*과 탄소 중립 기술 논의 * 캐나다, 노르웨이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 · '30년까지 450기가와트(gw)의 재생 에너지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, 인도와 파트너십 체결
운송 부문 활성화	· 전기 자동차와 기반 산업 개발에 대한 투자 증진과 항공·선박 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
미래를 위한 인력 구축 및 경쟁력 확보	· 친환경·스마트 기술 기반의 제조산업 구축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수출입 은행(EXIM) 청정에너지 자문위원회 구성
청정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혁신	· 국내 수소 에너지, 탄소 포집, 산업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해외 친환경 발전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및 핵융합 발전 기술 공유 검토
기후위기 취약국을 위한 긴급 지원	· 태평양 기후대비 정책과 카리브해 에너지 복원 정책을 연동하여 취약한 섬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운송,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
생태계 보전형 탄소 감축 정책	· 열대 우림 재건을 위한 산림 기금(LEAF)에 10억 달러, 해안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립해양대기청(NOAA)에 3,400만 달러 투자
국내외 안전·보안 증진	· 2년 내 국내외 기관에서 국방부의 기후 위기대응 매뉴얼(DCAT)을 도입하도록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, 추후 동맹국과 DCAT 공유 가능성 검토

❸ 에너지·환경규제 강화 예고

- 부처별로 **트럼프 행정부 조치 검토를 통해, 유예·수정·철회 여부 고려**

· ①**오일 가스분야 메탄가스 배출 감축,** ②**자동차 연비,** ③**가전·기계 에너지 절약 기준 및** ④**유해 공기오염 물질 배출기준** 관련,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시한 내 조치결정 예정인 바, **동 분야 內 규제강화 전망**

※ **자동차 연비 CAFE(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) 규제** : 오바마 정부는 '25년까지 매년 5% 정도의 연비개선을 의무화('12)하면서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 미달성시, 해당 기업의 자동차 판매 대수당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

- **트럼프 정부**가 들어서면서 EPA(미국 환경청) 및 NHTSA(도로교통안전국)은 기존 **CAFE 규제를 완화한 'SAFE(Safer Affordable Fuel Efficiency)' 제도 도입**
- '18년 처음 논의된 SAFE 규제는 현행 CAFE 규제를 '26년까지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, '20년 3월 2018년 제시된 안의 절충안으로써 기존 CAFE 규제의 연비 개선폭을 2026년까지 연간 1.5%로 대폭 완화

- 이의 일환으로 ❶**'30년 판매되는 신차(승용차, 경트럭)의 절반을 배터리·플러그인하이브리드·연료전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(ZEV)로 생산토록 하는 목표 발표('21.8월, 행정명령) 및 ❷차종별 연비·온실가스 포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목표 신규 발표 예정 ('27~'30 모델 적용)**

-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계*

  * 탄소, 아산화질소, 메탄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각각 추정할 것을 지시

❹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

- 키스톤 송유관 건설 허가 취소, 석유·천연가스 시추 신규허가 중단 및 연방정부 화석연료 직접 보조금 중단

- **연방정부 구매력과 자산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개발·생산 확대**

※ 연방정부 구매력 및 자산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개발·생산 확대 조치

· 범정부 청정에너지 산업부흥 종합계획 수립

* ❶'35년까지 전기분야 내 무탄소공해 실현, ❷연방·주·로컬 정부 內 청정·무탄소 차량 사용 등의 내용 포함

· (바이 아메리칸) 청정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 증대에 필요한 조달시 의무화

· 연방 소유 토지와 연안 내 **재생에너지 생산 확대**

* **'30년까지 해상풍력 에너지 생산 2배 확대 목표**

- **(연방정부 인프라 투자)** 기후공해 축소 의무화 및 **클린에너지 프로젝트 가속화**

□ **(탄소국경세* 도입 공식 검토)** 2021 USTR 통상아젠다를 통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, 교역국이 기존 무역협정 내 환경기준을 위반할 경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힘.

※ **탄소국경조정제도**: 국내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보다 수입품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, 배출량 초과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

○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관리들에게 탄소 국경세가 초래할 영향과 금액 부과 방식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 ('21.5월)

○ **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(델라웨어)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(캘리포니아) 하원의원**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**수입품 타겟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 발의*('21.7.19.)**

※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주요 내용
- 적용 분야 : 알루미늄, 시멘트, 철, 추후 지정품목 및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% 초과인 품목
- 적용 시기 : '24.1.1.
- **면제국** : 최빈개도국, 미국산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국가 등

□ (**WTO 각료결의안 초안***) **환경규정 위반도** WTO에서 규정하는 **상계가능 보조금으로 규정하여 동일하게 대응**토록 제안

* '공정경쟁환경 무역규칙을 통한 지속가능목표 추진'이라는 제목으로 제출('20.12.17.)

○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출하였으나, **바이든 행정부 정책기조와 유사한 내용**을 포함하고 있어 **동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** 다대

○ (향후일정) 차기 각료회의(시기 미정)에서 만장일치로 승인 필요

□ (**기후리스크 정보공시**) SEC(증권거래위원회)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올해 연말까지 기후 리스크 정보공개 규칙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힘*.

* UN PRI Climate and Global Financial Markets 웨비나 (7.28.)

○ **기후 공시가 10-K(사업보고서)에 포함돼 제출해야 할지 검토 중인데, 양적* 공시와 질적** 공시를 함께 고려**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* (양적공시)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,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, 기후관련 목표 진척사항 등

** (질적공시) 기업 최고경영진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관리방식과 관련 요소들이 기업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해 주요 질문에 답하는 형태

- 현재 미국은 자율적으로 ESG 공시 여부 선택이 가능 (권고사항)

○ (참고) 美 하원에서 'ESG 공시 및 단순화법(The ESG Disclosure and Simplification Act) 통과 ('21.6.16.)

※ 법안 주요 내용
- 기업이 ESG 측정 기준을 광범위하게 공개하고 기후 위험, 정치적 지출, CEO 급여 및 세율을 명시하도록 의무화

□ **(FRB 內 기후조직 신설)** 연방준비제도(FRB)에서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, 산하에 '금융안정 기후위원회(Financial Stability Climate Committee)'와 '기후 감독위원회(Supervision Climate Committee)' 신설

❷ 사회(Social)

□ **2021 미국 통상정책 아젠다 통해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 의지 구체화**

○ **기존 무역협정 內 노동자 조항 완벽 이행**

* 특히, USMCA 위반사례 해결을 위해, 협정 內 노동 분쟁해결 절차인 신속대응절차(Rapid Response Mechanism)에 따른 직권개시나 제소해결에 노력할 계획

○ **신규 무역정책 수립시, 강력하고 집행가능한 노동기준을 포함**

- 노동조항이 강화된 USMCA를 본뜬 FTA 추진 가능성 다대

- **강제노동·노동착취 근절 및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무역조치(the full range of trade tools at its disposal) 사용 준비**

· 아울러, 동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도 협력할 계획

- 특히, **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**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광범위한 **인권침해 이슈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**로 삼을 계획

· 강제노동 근절 및 기업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모든 방안 검토 추진

* 美 관세국경보호청, **신장 위구르 지역 면화·토마토·폴리실리콘 대상 인도보류명령** 발동

· 美 **상원, 중국 신장 제품 수입금지안 통과('21.7.14.)**

※ 법안 주요 내용

- 법안에서는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(rebuttable presumption : 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)이 담김.
- 미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물품의 수입은 모두 차단되고 강제노동 산물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수입업체에게 귀속

□ **기후변화·불법노동을 미래 핵심품목(반도체·배터리 등) 공급망 위협 요인으로 지목하여 대응 추진**

○ 「4大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보고서('21.6.8.)」에서는 미국 내 신규 자동차 배터리 생산에서의 높은 노동 기준 준수 요구

- 세액 공제, 대출 및 지원금 등을 통해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조합 설립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

❸ 지배구조(Governance)

□ **나스닥**은 SEC(증권거래위원회)에 **상장회사들의 이사진 다양성 증진을 의무화하는 제안서를 제출** ('20.12월)

○ SEC가 이 제안을 승인하면 앞으로 대부분의 나스닥 상장사들은 최소 2명의 이사를 소수계층에서 선임 의무

- 1명은 여성, 1명은 소수인종이나 성소수자(LGBTQ)로 선임

나 EU

□ **EU「탄소국경조정제도(CBAM: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)」 입법 초안 공개** ('21.7월)

○ **(도입 배경)** EU 집행위, '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% 감축('90년 대비)을 위한 기후대응 법안 패키지인 「**Fit for 55 Package**」 발표('21.7월)

- 패키지 일부로 「**탄소국경조정제도(CBAM: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)** 」 **초안** 공개

○ 주요 내용

- **(적용 대상)** EU 역외산 **철강, 알루미늄, 시멘트, 전기, 비료로 한정**

- **(도입 형태) EU ETS(Emission Trading System)와 통합**하여 시행되며, **배출권 가격과 CBAM 인증서 가격*** **연동**

  * EU ETS 배출권 경매 종가의 주당 평균 가격 적용

  · 수입업자는 **전년도 수입품 내재 배출량*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(certificate, 배출량 1톤당 인증서 1개 필요)를 구매하여 제출 의무화**

  * **직접 배**출만 해당 (실제배출량 산정 불가 시 디폴트 배출량* 적용)

> ※ **디폴트 배출량(Default value) :** ① 대상 품목별 수출국의 평균 배출량을 바탕으로 산정하거나, ② 국가별 수치 파악 불가 시, 동일 품목의 EU 역내 배출량 상위 10% 평균치 적용.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가이드라인 수립 후 발표 예정.

○ **운영 절차**

- **(연 단위 신고·청산) 매년 5월 말까지 수입업자는 ❶전년도 수입 수량, ❷수입품에 포함된 배출량**과 **❸인증서 수량**을 **CBAM 당국에 신고·제출**

- **(차감 청구)**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비용을 旣 납부한 경우, 旣 납부비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요청* 가능

  * 수출자 대상 할인액 및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 증빙 구비 필요

· **(주요절차)** 수입업자가 소재국 內 CBAM 당국에 수입자격 승인 요청→ 승인시, 인증서 전용 계좌가 회원국 Registry(등록소)에 개설 → 수입업자 인증서 구매* 계좌에 기록 → (5월 말) 수입업자 신고 후, 계좌에서 인증서 정산 → (6월 말) 전년도 구매 잔여분 환매(전년도 구매량의 최대 1/3) 후, 초과분 취소

* 분기별 인증서 의무 보유량 : 계정 내 연초 이후 수입된 물량의 누계 탄소배출량 기준, 최소 80%에 상응하는 인증서 수 보유 의무화

· (**참고사항) 역외 생산시설이 CBAM 당국에 등록**(공인기관 인증 배출량 정보 등) 하면, **수입업자는 동 정보를 별도의 인증 과정 없이 그대로 이용 가능 (5년 간)**

- (**EU ETS 무상할당 반영**) EU ETS에서 **역내시설 대상으로** 배출권을 **무상 할당하는 수준을 반영하여 인증서 수량에서 차감 예정**

· 특정 제품의 CBAM 인증서 제출량 = (해당 제품의 배출량) - (EU ETS에서의 해당 제품에 부여된 무상할당량)

○ 기타 사항

- (**벌금**) 미납 인증서당 100 유로

- (**적용 예외국**) EFTA 등 일부 국가(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, 노르웨이, 스위스)와 EU 외부영토(Ceuta, Melilla 등) 미적용

- (**추진 일정**) 유럽의회·각료이사회 협의·승인 → **발효 및 이행('23년 일부 시행 후 '26.1.1일부로 본격 적용)**

*** 3년 간 이행 기간(transitional period) 설정**

· 집행위는 전환기간 동안 **대상 품목 확장 여부**와 **간접배출 탄소에도 비용을 부과할지** 등을 검토 예정

※ 전환기간 ('23.1.1~'25.12.31) 관련 주요 내용

· **(의무)** 수입자는 **분기별로 CBAM 보고서***를 **수입국 관할당국**에 제출

* 포함내용 : 해당분기 수입총량 및 생산시설별 물량, 내재된 직접배출 및 간접배출 탄소량, 해당 제품의 원산지 국가에서 부과된 탄소가격

· 관할 CBAM 당국은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관련 정보를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, 보고서를 미제출한 수입자에게 벌금을 부과 가능

□ **'35년부터 역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안 발표**

※ 기후 대응 법안 패키지인「Fit for 55 Package」내 포함

○ **(규제대상)** 경량 자동차(Light Duty Vehicle,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)

* 중량 자동차(Heavy Duty Vehicle, 트럭, 버스 등) 배출규제 개정안은 '22년 별도 발표 예정

- **(주요 변경사항) 주기별 CO_2 배출 감축목표 상향 조정** 및 **내연차 판매금지('35)**

< 주기별 CO_2 배출 감축목표 >

주기	승용차	소형 상용차
현행목표(기준)	95g CO_2/km	147g CO_2/km
~'25년	-15% (종전동일)	-15% (종전동일)
~'30년	-37.5%→**-55% (강화)**	-31%→**-50% (강화)**
~'35년	**-100% (신설)**	**-100% (신설)**

○ **(향후 전망)** '22년초 **EU의회 논의를 시작으로 이사회 승인을** 거쳐 **'22년 말~'23년 초 최종 승인** 전망

- 이사회 통과 후, 개별회원국의 입법 절차 없이 효력 발생

○ (참고) **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별 친환경차 전환계획**

- 현지 완성차 업체는 이미 '30년까지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최소 50%~100%까지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'25년까지 관련 투자를 본격화할 계획

< 주요 완성차 업체별 친환경차 전환목표 >

기업명	차종	목표	연도
볼보(Volvo)	BEV	50%	2025
		100%	2030
폭스바겐(VW)	BEV, PHEV	70% 이상	2030
스텔란티스(Stellantis)		70%	2030
BMW	BEV	최소 50%	2030
르노(Renault)	ZEV, PHEV, HEV	65%	2025
		90%	2030
다임러(Daimler)	BEV	최대 25%	2025

* 주 : 배터리전기차(BEV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차(PHEV), 탄소제로배출차(ZEV)
자료원 : EU 집행위

□ 脫플라스틱 정책 추진

○ (목적) ❶**플라스틱 생산량 감소,** ❷**재활용 비율을 높이면서** ❸**대체재**(바이오 플라스틱 등)**를 개발해 '순환경제'로 이행**

○ (방법) **순환경제패키지**('15.12월) 발표 **후,** ❶**순환경제실행계획**('20.3월) ❷**플라스틱세**('20.7월) ❸**플라스틱 폐기물수출규제**('20.12월) **등을 추진**

❶ **제품설계**→재활용 까지 **全생애주기** 고려한 '**순환경제실행계획**' 발표('20.3월)

- 동 실행계획은 제품의 **설계*와 생산에 중점**을 두고, 사용된 자원이 가능한 오랫동안 EU경제에 머물도록 목표를 설정

* EU 집행위는 제품이 환경에 주는 영향에 **최대 80%가 제품설계에서 결정**되므로,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**가치사슬 초기단계인 제품설계**가 중요하다고 판단

- **구체적인 목표는 개별규정 또는 지침** 등을 통해 추진

· **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지침 :** 플라스틱병 재활용수거율은 77%('25년)→90%('29년)

· **플라스틱 폐기물 지침 :** 도시폐기물 재활용은 최소 55%('25년)→60%('30년)→65%('35년)

· **포장재 지침 :**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은 50%('25년)→55%('30년)

❷ EU이사회에서 **플라스틱 폐기물감축**을 위해 **플라스틱세**를 채택('20.7월)

- 회원국은 연간 자국별 포장재 플라스틱 발생량에서 **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제하고 남은 폐기물**에 **kg당 0.8 유로를 EU에 납부**

- EU 자체로는 세금 징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**회원국은 연간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**을 **EU에 납입**

* 국별로 부과시기, 대상 및 방법은 상이

❸ 역내폐기물처리 책임강화 위해 **유해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금지**('20.12월)

- EU역외로 재활용 불가 또는 유해 플라스틱 폐기물 **전면 수출금지**('21.1월)

* 재활용이 가능하고 무해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될 수 있으며, 수출업자는 △**폐기물의 유해성** △**형태** △**처리기준** 등을 기입한 **서류 제출 필요**

□ 기업 공급망 실사법안(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 Directive) 추진

○ **논의 배경**

- **UN, OECD** 등에서 환경·인권보호 관련, **기업의 자발적 공급망 실사를 규정**하고 있으나, **실효성에 의문 제기**

- **EU 집행위 법무담당 집행위원(Didier Ryenders), 기업 공급망 실사(due diligence) 강제 규정을 도입**하겠다고 발표 ('20.4월)

  · 회원국이 개별 도입한 ESG(환경·인권·거버넌스) 법안은 아동노동 등 특정 이슈에만 초점을 맞춰, **ESG 전반을 다루는 법안 필요성 제기**

  · **EU 집행위**는 **3분기 중 초안 발표 계획**

○ **추진 동향**

- **EU 집행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·공공협의**('20.6~'21.2월) **등을 통해 법안(지침*형태)을 마련 중으로,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음.**

* EU 회원국들에게 목표를 정해주고, 회원국별로 실정에 맞게 국내법 제정

- 다만, 최종의결권을 가진 **유럽의회에서 의회 입장을 정리한 '기업의 실사의무' 결의안을 채택**('21.3.10)함으로써, **추진방향 유추 가능**

❶ (적용 대상) **EU에서 활동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**

· (**대기업**) 회원국별로 상이한 기준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나, 결의안에서 **EU 非재무정보 보고지침(NFRD)*을 인용한 바, 동 기준 반영 가능**

* 非재무제표를 통해 기업 활동의 사회·환경 영향을 공개토록 하는 지침으로, 지침 內 대기업 기준은 ❶근로자 500인 ❷자산총액 2,000만 유로 ❸순매출 4,000만 유로 이상

· (**중소기업**) **상장기업과 고위험기업***

* 고위험기업은 정의되지 않았으나, 분쟁광물 채취가 공급망에 포함된 **전자제품, 특히 반도체·배터리·ICT 등에 적용 유력** (결의안 서문에서 OECD 분쟁광물 가이드라인 언급)

· **(EU 역외기업에도 적용)** 제 3국에 설립되었으나 EU 역내 시장에서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도 적용

❷ (기업의 실사의무) ESG 관련 **기업 활동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확인(identify)·대응(address)·시정(remedy)하는 의무 이행**

· **ESG 실사*** **전략을 수립하고 이행**

※ ❶ 식별·평가(identify, assess), ❷ 이를 예방, 중단 또는 완화(prevent, cease, mitigate), ❸ 조치의 효과성을 모니터링(monitor), ❹ 보고·설명 (communicate, account for), ❺ 적절히 대응 및 피해 구제(address, remediate) 하는 **모든 활동을 의미**

· **자체 기업활동** 뿐만 아니라 **밸류체인 전반 또는 사업관계(business relationship)*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실사의무 확장**

* (**밸류체인**) **전후방 직간접 사업관계**를 **포괄**(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 뿐만 아니라, 대상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도 모두 포함)

* (**사업관계**) 자회사, 공급사, 하청업체 등 **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**

· **(고충처리제도)** 이해관계자 대상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여, 금전적·비금전적 보상이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

❸ (위반시 제재) **개별 회원국에서 국내법 제정시 처벌조항 구체화 예정**

· ❶**매출액 비례 과징금 부과***, ❷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**정부조달이나 국가지원 정책에서 제외** 등의 방안 도입 가능

* **유럽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(GDPR) 내 행정제재**를 **벤치마킹 가능하다고 언급** (최대 2천만 유로 or 전년도 매출액 4% 과징금 부과)

❹ (민사상 책임) 자체 기업 활동 뿐만 아니라 **협력사로 인한 ESG 관련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 법제화**

· 아울러, ❶**의무위반 책임을 원고(피해자)에서 피고(기업)에게로 전환,** ❷피해자의 직접적인 **피해 구제를 위해 사법적 수단 강구 및 EU 사법기관에 제소**도 허용해달라고 제안

○ **향후 전망**

- EU 집행위는 **'21년 3분기 중 관련 지침 제안 후, 이사회와 의회 의결을 거쳐 '24년부터 시행 계획**

□ **친환경 배터리 규제안 발표**('20.12.10)

o **(목표)** 역내 기준을 국제 배터리 산업 표준으로 수립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

- **EU 차원에서 중점 육성중인 산업(배터리 등) 타겟 조치 가시화**

o **(규제 개요)**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❶재활용 원료 비율 강화, ❷지속가능성, ❸탄소발자국 등 규제를 마련하고 위반시 역내 시장 유통 및 판매 불가

- 생산부터 폐기물 처리, 재활용까지 全 산업주기를 아우르는 **순환경제 관점에 입각한 규제 도입** 예상

< 분야별 세부 규제내용 >

분야	세부 규제내용
기술문서	· '24.7.1부터 전기자동차 및 충전 가능한 산업용 배터리, 기술문서 작성 의무 * 기술문서 포함 정보 : 생산기업, 탄소발자국, 제조자 선언서, 선언 내용 증빙 가능한 링크 등
탄소발자국	· '24.7.1부터 기술문서에 포함될 탄소발자국(footprint declaration) 적용 및 '27.7.1부터 탄소발자국 배출 상한기준(maximum lifecycle carbon footprint thresholds) 적용 - 집행위는 '23.7.1까지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예정
재활용 원료	· '30.1.1부터 산업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내 코발트·납·리튬·니켈 물질에 대해 재활용 원료 사용비율 의무화 및 '35년부터 상향 조정할 계획 - ('30.1.1일부 적용) 코발트 12%, 납 85%, 리튬 4%, 니켈 4% - ('35.1.1일부 적용) 코발트 20%, 납 85%, 리튬 10%, 니켈 12% · 이 밖에도, 동 4개 물질은 '27.1.1.부터 기술문서 작성 필요. 이를 위해 집행위는 '25.12.31.까지 물질 함유량의 측정방법 및 기술문서 작성 기준 마련 예정
지속가능성	· 배터리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을 포함한 라벨링, 제품안전, 생산자 책임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통 기준 수립 * 집행위, 배터리 폐기물 수거 비율 목표 '25년 65% 및 '30년 70% 설정
배터리 여권	· '26.1.1.일까지 역내 시장 내 유통되는 배터리의 제품정보 및 처리·재활용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배터리 여권(Passport) 시스템 도입 예정
시장감독	· 회원국별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규제 이행에 대한 시장감독 강화

o **(향후 일정)** 유럽의회 및 이사회 동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

□ 유럽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(SFDR*) 시행

*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

o **(목표)** 기후변화와 투자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수요 제고에 부응하는 동시에 구체적 책임을 부과해 그린워싱(green washing)* 예방

* 실제로는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, 녹색경영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

o **(주요 내용) EU의 금융기관이 투자자들에게 기업수준에서의 지속가능성과 상품수준에서의 비재무적 금융정보 공시 의무화**

<적용대상 및 일정>

분류	주요 내용
대상기관	· 금융시장 참가사 및 자문사에 단계적 적용 - 보험사 및 중개사, 퇴직급여 관련 회사(IORP), 투자회사 및 신용기관, 대체투자운용역, 양도성증권 집합투자 관련회사 등
일정	· '21.3.10일부터 모든 금융상품이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고려하는 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 사전계약 문서를 통해 공시. 올해 말 까지 1차 참조기간을 거치며 내년 1월부터 기술표준 (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, RTS)*을 적용. 현재 RTS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데이트 중 - 근로자 500 인 이상 금융기관은 올해 6.30일부터 금융상품이 지속가능성 요소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 영향 (Principal Adverse Impacts, PAI)을 웹사이트에 공시 - '22.1.1일부터는 2차 참조기간 시작. 금융상품의 텍소노미 (Taxonomy, 녹색분류체계) 관련 공시 사항에 대해서도 주기적 보고서 발간 - '23.6.30일까지 RTS 관련 세부사항 보완. 2024.6.30.일까지 1~2차 참조기간과 비교하는 공시를 덧붙여야 함 *RTS: SFDR의 이행방안에 관한 기술표준. 올해 2월 EU 금융당국(EBA, EIOPA, ESMA)이 수정안 발표. 투자대상을 크게 3개로 명확히 구분하고, 중복 내용을 통합해 기존 32개에서 18개로 간소화
의무공시 항목	· 총 18개 항목으로 기업, 국가, 부동산자산 투자로 구분 (아래 표* 참고)

자료원 : 국제금융센터, 키움리서치센터

<투자대상별 의무공시사항>

적용	구분	Indicator		Metrics
투자국가	환경	①온실가스 배출		피투자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
	사회	②사회 관련 국제규범 등 위반		국제법, UN 원칙, 국제조약상 사회 규범 위반 건수 (투자국 평균 위반 건수)
부동산	화석연료	③부동산을 통한 화석연료 익스포져		화석연료 채굴, 저장, 이동, 제조 관련 부동산 투자 비중
	에너지 효율성	④에너지 비효율 부동산 익스포져		에너지 비효율 부동산 투자 비중
투자기업	환경	온실 가스 배출	⑤온실가스 배출량	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
				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
				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
				총 온실가스 배출량
			⑥탄소 발자국	탄소 발자국
			⑦피투자기업 집약도(intensity)	피투자기업의 매출액 기반 집약도(intensity)
			⑧화석연료 관련 기업 익스포져	화석연료 관련 기업 투자 비중
			⑨비재생에너지 소비·생산 비중	피투자기업의 재생에너지 대비 비재생에너지 소비·생산 비중
			⑩에너지 소비 집약도 (intensity)	피투자기업의 수익(백만유로)당 에너지 소비량(GWh)
		생물 다양성	⑪생태보호구역내 부정적 영향 활동	생태보호구역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기업 투자 비중
		수자원	⑫폐수 방출	투자액 백만유로당 피투자기업 배출 폐수량(톤)
		폐기물	⑬유해폐기물 비율	투자액 백만유로당 피투자기업 배출 폐기물량(톤)
	사회	사회와 근로자	⑭국제규범/기준 위반	UNGC 원칙, OECD 다국적 기업 G/L 위반한 기업투자비중
			⑮국제규범/기준 준수 감독 미흡	UNGC 원칙, OECD 다국적 기업 G/L 준수 감독체계가 없는 기업 투자비중
			⑯남녀 임금 차이	피투자기업 평균 남녀 임금 差
			⑰이사회 성별 다양성	피투자기업의 평균 남성이사 대 여성이사 비율
			⑱분쟁무기 익스포져	분쟁무기 제조·판매 관련 기업 투자 비중

자료원 : ESG Focus June 2021, 법무법인 광장 ESG Group

□ **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(CSRD,**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**) 시행**

* EU 비재무정보보고 지침(NFRD)이 개정됨에 따라 CSRD로 명칭 변경

o **'17년부터 EU 역내 기업들 중 특히 대기업*의 사회 및 환경 영향을 비재무제표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**

* 'EU 회원국 내 상장기업, 비상장 은행·보험사 및 회원국에서 공익단체로 지정한 기업' 중, 근로자 500인 이상이고 '자산총액 2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순이익 4천만 유로 이상'인 기업 (약 11,000개 기업)

- 환경·인권 보호, 사회적 책임, 반부패, 뇌물, 이사진 다양성, 기업 활동의 기존·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·방지 및 완화를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 절차에 관한 정보공개 및 이에 대한 감사 의무 부여

- 기업은 Comply or Explain (준수를 원칙으로 하고, 예외시에는 설명) 원칙에 입각해, 해당 공시내용을 사업보고서나 별도 보고서를 통해 공개

o EU 집행위원회는 **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보고에 대한 감사의무, 상세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 등을 담은 수정안 제안('21.4.21.)**

*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존 지침을 개정하여, 적용대상기업 확대,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정보 구체화,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감사의무 도입,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마련, 지속가능성 정보의 디지털화 등을 규정

- (적용대상) **모든 대기업(상장 대기업 + 비상장 대기업), 상장 중소기업 (상장 micro-enterprise 제외) → 약 50,000여개 기업 대상**

- (보고정보) △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(지속가능성 관련), △지속가능성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상황, △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행정/관리/감독 기관의 역할, △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정책, △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실사 절차(due diligence process), 사업의 value chain과 관련된 주요 부정적 영향, 부정적 영향을 예방·완화·개선하기 위한 조치 및 조치결과, △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사업의 주요 위험 등 (제1조 (3))

- (감사의무) 보고된 지속가능성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EU 차원의 감사(보증) 요건 도입 (제3조 (12))

- (지속가능성 보고 표준) EU집행위는 2022년 10.31일까지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(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)을 채택*(위임법률)하여 지속가능성 정보를 구체화할 예정 (제1조 (4))

  * 유럽금융보고자문그룹(EFRAG;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)이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초안을 마련 예정

- (지속가능성 정보의 디지털화) 기업은 재무제표와 경영보고서를 ESEF 규정(European Single Electronic Format Regulation)에 따라 XHTML 형식으로 작성하고, 그 규정에 명시된 디지털분류시스템(digital categorisation system)에 따라 보고된 지속가능성 정보에 '태그(tag)'를 달아야 함.

□ EU 분류체계 규정 (EU Taxonomy Regulation)

o EU 집행위는 **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이행수단으로 분류체계 규정을 발효시키고('20.7.12.)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녹색경제 활동 여부 판단기준 수립**

o 집행위는 1차 위임법률('21.4.21)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경제활동(9개 분야, 88개 활동) 및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경제활동(13개 분야 95개 활동)을 발표

<EU 분류체계 개요>

6대 환경목표	판단조건
①기후변화 완화 : 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수자원,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	①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 수준 기여 ②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(중대한 무해성 원칙: DNSH) ③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* 준수 * UN 기업 및 인권지침서,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 ④기술심사기준에 부합

Ⅳ. 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

※ 조사개요

- **조사 대상국 : 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캐나다, 일본 등 6개국**
- **조사 내용 : 31개 기업의 ESG 대응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**
  - ❶ 투자자·글로벌 기업 요구에 따른 ESG 경영 강화
  - ❷ 기존 사업재편 및 신규 사업기회 발굴
  - ❸ ESG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자본으로 활용
  - ❹ (금융권) 기업 고객 대상 ESG 경영 인센티브 제공

1 투자자·글로벌 기업 요구에 따른 ESG 경영 강화

o **(환경규제 강화)** 탄소배출량 감축, 폐기물 감소·재활용 확대,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, 유틸리티(물, 전기 등)/플라스틱·포장재 사용 감축, 제품 소싱 밸류체인에서 불법삼림 벌채 금지 등

- 이를 위해 신기술을 적극 채용하거나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착수

o **(인권 보호)** 원자재 확보시 아동노동 등 불법 노동 방지

o **(다양성 제고)** 성별, 인종 등에 있어 다양성 확보 및 급여 평등 추구

구분	국가	기업명(주요사업)	추진 내역
E	미국	세븐스 제너레이션 (생활용품)	· 아마존 벤더로서 권장사항인 기후 서약(Climate Pledge)* 캠페인 활동에 동참 * '4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목표 · 아마존 플랫폼 내 신설된 지속가능성 인증제품 전용 코너인 'Climate Pledge Friendly'에도 55개 제품 등록·판매
	일본	세븐&아이 홀딩스 (세븐일레븐 포함 편의점 체인 운영)	· 미국 편의점 점유율 3위인 '스피드 웨이*' 인수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'탈탄소'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 제기 * 스피드 웨이 : 주유시설을 같이 보유한 미 편의점 체인 · '50년까지 일본 내 점포 운영에 따른 CO_2배출량 제로 목표 - '21년 2분기부터 임원 급여에 CO_2 감축량을 반영하여, 2% 감축시 5% 인상, 2%이상 증가시 10% 인하
	프랑스	에어버스 (항공기제조)	· 환경데이터 공개(에너지·전력 소비·CO_2 배출량 등) · '35년까지 수소를 연료로 한 기후중립 비행기 생산 추진 - 프로토타입 공개('20.9월)
S	일본	메이지 (식품)	· 삼림 파괴,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자사에서 지원한 지역 농가 카카오 콩만으로 100% 조달 계획
	일본	후지 오일 (식료품)	· 원료조달 카카오 농장에서 '30년까지 아동노동 근절 추진 · 팜유 생산 밸류체인 100% 관리, 고충처리 메커니즘 도입
G	미국	HP(컴퓨터 HW)	· 미국 내 여성, 소수민족 소유기업에 10억 달러 투자
	일본	히타치 (전자기기·부품)	· '30년까지 여성 임원 30%, 외국인 임원비율 30%까지 확대

2 기존 사업재편 및 신규 사업기회 발굴

o (오일메이저·내연기관차) 기존 화석연료 사업 비중을 줄여나가면서, 저탄소 분야로 사업재편 및 다각화

- (**오일메이저**) 글로벌 정책 변화*에 따른 저유가 지속과 투자자 ESG 요구가 맞물려 오일메이저 기업들의 사업전략 변화 불가피

  * 환경규제와 연비개선, 전기차 보급 확대

  * 원유수요의 45%를 차지하는 자동차(가솔린, 경유), 7%를 차지하는 항공(등유), 4%를 차지하는 선박(BC유)의 친환경 연료 전환 가속화

· 원유 → 재생에너지, 탄소포집 등 탈탄소 사업분야로 진출 가속화

- (**내연기관차**) 내연기관차 생산을 줄이고, 전기자동차 생산 확대

구분	국가	기업명	추진 내역
오일 메이저	영국	BP	· **'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, '30년까지 원유, 가스 생산량의 40% 감축 계획 발표** · **매년 50억 달러를 저탄소 에너지에 투자** - 미국 해상풍력 시장에 11억 달러 투자('20), 영국 3GW 해상풍력단지에도 입찰 참가 - 유럽 최대 태양광발전사인 Lightsource 지분 50% 확보 · **바이오 에너지와 수소에 투자해 전기차 충전기 7,500대를 '30년까지 7만대로 확대** (Chargemaster 등 충전 업체 인수확대) · 호주 Santos Moomba 가스발전소에서 발생하는 CO_2 1,700만톤 CCS 프로젝트에 투자 검토 중
	미국	엑손 모빌 (Exxon Mobil)	· **탄소 포획 및 저장 기술(CCS)에 3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('21.2월)** * 연간 700만톤 탄소포집 가능 CCS 시설 보유(와이오밍) · 바이오 연료기술 개발 - 조류와 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를 바이오 연료로 전환 추진
	영국·네덜란드	쉘 (Shell)	· **'석유·가스' 회사가 아니라 '에너지 전환회사'로서, '전기 회사'로 탈바꿈 시도** - 연간 20~30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, 투자금 중 80%를 전력 부문에 집중 추진 * 영국 전기가스 공급사인 First Utility와 전기차 충전업체 New Motion 인수('17) · **석유와 석탄의 비중을 줄이면서, 풍력, 태양광, 수소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에 투자 집중**

	미국	세브론 (Chevron)	· **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'28년까지 30억 달러 투자 계획** - 20억 달러는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, 재생에너지 및 오프셋(offset) 활동에 7억 5천만 달러 투자 예정 - 3억 달러를 저탄소 기술 펀드에 추가 투자 예정으로 전체 저탄소 기술 펀드 투자액은 5억 달러임. * 탄소 포획 기술 및 저탄소 건축 자재를 개발한 스타트업 블루 플래닛(Blue Planet)에 투자 발표 · 슐룸베르거(Schlumberger) 및 MS와 파트너십을 맺고 캘리포니아에서 **바이오에너지 탄소포획 및 저장 기술 (BECCS)* 프로젝트 투자 계획 발표** * 바이오매스를 재생 가능한 합성 가스로 변환하며 이는 연소기에서 산소와 혼합해 전력을 생산. 이 공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99% 이상 포집
내연 기관차	미국	제너럴 모터스 (GM)	· **'3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** -'20년부터 5년간 전기차 관련 제품 개발에 270달러 투입 · '35년까지 세계 공장을 100% 재생에너지로 가동
	프랑스	르노 (Renault)	· **'30년까지 자사모델 최대 90% EV로 전환계획** - '25년까지 EV모델 10종 출시
전력	독일	RWE	· 독일 정부의 탈석탄정책('20)에 부응하기 위해, **'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생산하겠다고 발표** - **풍력 발전,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솔루션에 집중투자 계획** · 풍력·태양광 프로젝트 48개 추진 중 : 풍력 44개(해상11,육상33), 태양광 4개

o (기타) 기존 사업모델(기술)을 토대로 ESG 요소와 접목하여 新사업 발굴

국가	기업명	추진내역
일본	윌스테이지 (Willstage)	· **사회적과제 해결을 위한 저리 융자를 받아, 독자적인 수질 정화기술을 활용하여 육상 양식 기술개발** - 박테리아를 활성화시켜, 수조의 물을 교체하지 않고도 1년간 양식 가능 * 수중에서 복어의 독을 유발하는 성분을 제거함으로써, 현재 '독(毒)없는 복어' 약 2,000마리 시험양식 시행 중으로 양식에 성공할 경우 시가현 브랜드 제품으로 판매 예정
프랑스	까르푸 (Carrefour)	· '**더 많이', '더 싸게'의 전통적 대형마트 모델에서 탈피하여, '신선함', '로컬', '유기농' 키워드 중심 모델로 전환** - 소비자와 가까운 거리의 중소형 로컬 생산자와 거래 확대 - 교외의 초대형마트 모델 → '소비자 가까운 곳에서', '차이 없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', '합리적 가격으로', '누구나 접근이 가능한' 유형의 매장 확대

3 ESG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자본으로 활용

○ 기후테크 등 ESG 아이템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ESG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성장자본으로 활용

- 투자자들도 투자한 스타트업에 기업 방향성이나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도록 전폭 지원

국가	기업명	자본유치 내역
미국	바이탈 팜즈 (Vital Farms)	· **(주력사업) 동물복지 계란, 유제품 판매** - '깨어있는 자본주의'를 추구하며 **직접 경영하는 농장확대 보다는 225개의 소규모 가족 농장(동물복지농장)과 협력을 통해 판매 제품 생산** · **(투자유치) 대규모 투자 유치보다 필요한 자본을 조금씩 조달한다는 전략 하에 1~2년 주기로 임팩트 자본유치** - SJF Ventures에서 $2.3M('13), Arborview Capital에서 $2.25M('14), Sunrise Strategic Partners 등으로부터 $11.1M ('17) 등 유치 - **'20년 초에는 IPO(기업공개상장)으로 $2억 유치에 성공**
캐나다	카본큐어 테크놀로지 (Carbon Cure Technology)	· **(주력사업) 포집 CO_2를 콘크리트 제조 공정에 넣어 콘크리트 강도 제고 및 대기에서 CO_2를 영구 감축** · **(자본유치) 클린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2150, 아마존 기후서약 펀드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1,100만 달러 유치**
프랑스	바라프 그룹 (Varappe Group)	· **(주력사업) 경력 단절 및 소외계층 대상 교육/구직 서비스제공** - '19년에는 5,300명을 교육하여 80%가 이직에 성공 · **(투자유치) 사회적 임팩트 투자에 집중하는 Phitrust로부터 '07년 70만 유로 투자 유치에 성공(프랑스 ESG 투자의 시초)** - **Phitrust는 바라프 그룹 내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자문도 제공** - Phitrust를 비롯한 BNP Paribas 등으로부터 2차 투자 자금인 420만 유로 유치에 성공
영국	그립에이블 (Gripable)	· **(주력사업) 뇌졸증, 관절염, 뇌성마비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손과 팔 재활운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핸드그립 (Hand Grip)을 개발** - 그립을 누르는 활동을 모바일 앱을 통해 근력, 반사작용 등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, 맞춤형 게임과 연계한 재활운동 지원 · **(투자유치) Triple Point社가 운영하는 소셜 임팩트 펀드인 Impact EIS로부터 52.5만 파운드 유치 ('19)**

4 (금융권) 기업고객 대상 ESG 경영 인센티브 제공

o **(ESG 성과연계 금융 확산) 지속가능서 연계 대출 등(Sustainability Linked Loan)등 ESG 성과 우수 기업 대상 우대금리 대출**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 (부진기업 대상 높은 금리 적용)

- **일부 지정분야(석탄화력 에너지 생산, 석유관련 기업 등)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, 대출자체를 배제하는 금융사도 있음.**

- 녹색 예금상품을 시판하여 해당 자금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나 CO_2 배출 감축 사업에 대출하는 사례도 있음.

국가	금융사	주요 ESG 인센티브 내용
일본	시가은행	· **시가 CO_2 Net Zero Plan** - SLL(Sustainablity Link Loan)의 일종으로, 2021.3월 개시 - CO_2 삭감목표 및 달성상황에 따라 금리 우대 - 시가현(광역지자체)과의 목표·행정부문 연계를 통해 대출시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
	미쓰이 스미토모 은행	· **녹색예금 상품 개발(2,000억엔 규모)** - 기업 및 기관 투자자로부터 받은 예금을 재생에너지, CO_2 배출 감축 사업 등에 대출
영국	LLOYDS Bank	· **Clean Growth Financing Initiative** - 그린 프로젝트용 대출시 25bp 우대금리 적용
미국	HSBC USA	· **지속가능성 연계 대출프로그램(Sustainability Linked Loan) 운영** - 지속가능성 실적 목표*(sustainability performance targets)를 미리 정하고, 목표 도달시 대출 우대금리 적용 * 온실가스 감축량, 신재생에너지 사용량, 종업원 다양성 등
독일	Umweltbank (환경은행)	· **친환경 프로젝트에만 대출지원** - UN SDG 17개 목표 부합하는 프로젝트로 지원대상 한정
프랑스	BNP Paribas	· **ESG 평가에 따라 대출·투자 장려 vs. 배제분야로 구분** - 장려분야(신재생에너지 기업 등) : 우대 금리대출 등 특별 프로그램 마련 - 엄격심사 or 배제 분야 : 무기생산, 팜오일생산/유통, 펄프 생산 및 벌목, 석탄화력 생산, 광산 채굴 등

첨부 1 투자자 · 글로벌 기업 요구에 따른 ESG 경영 강화사례

1 미국

기업명	세븐스 제너레이션 (Seventh Generation)	주력사업	종합 생활용품 (친환경세제, 화장지 등)
ESG 추진배경	ㅇ 아마존은 기후변화 대응기구인 글로벌 옵티미즘과 공동으로 기후 서약*(Climate Pledge) 캠페인을 발족('19)하고 자사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참여 벤더들을 대상으로 참여 권장 * 파리 협정보다 탄소중립을 10년 앞당겨 '40년까지 달성 목표 - Climate Pledge Friendly 웹사이트*를 런칭하고 지속가능성 인증제품만 판매 * 제3의 친환경제품 인증기관과 협력 및 자체적인 지속가능성 인증 (Compact by Design : 과잉 공기, 물 사용량, 포장재 등이 감축된 디자인 제품 인증) 출시를 통해, 해당인증을 획득한 제품만을 별도로 판매하는 웹사이트 개설 ㅇ 이와 같은 선상에서 아마존은 비영리 기후기관인 'We Mean Business'와 협력하여, 벤더 대상으로 야심찬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채택('4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등)하도록 권장		
추진 내용	ㅇ We Mean Business에 가입하고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활동 추진 - 제품 소싱 체인에서 불법 삼림 벌채와 회손 중단 노력 - 포장재 중량 감축 등 ㅇ 아마존 Climate Pledge Friendly 웹사이트에 55개가 넘는 제품 판매 중 - 아마존의 동참 요구도 있었지만, 자사의 친환경 제품라인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 * 실제로 이 코너에 등록된 제품은 非등록 제품대비 클릭률(광고를 본 사용자가 실제 클릭하는 비율)이 60%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짐.		

기업명	클로락스(Clorox)	주력사업	청소용품
ESG 추진배경	ㅇ 소비재 기업으로 제품자체와 포장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적 압력 직면		
추진 내용	ㅇ 플라스틱과 기타 폐기물 감소 추진 - '30년까지 플라스틱 및 섬유 포장재 50% 감소 - '25년까지 100% 재활용, 재사용 또는 퇴비화 포장 - '30년까지 100% 글로벌 설비 폐기물 제로 ㅇ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Enel Green Power의 Roadrunner 태양광 프로젝트로부터 12년간 매년 70MW의 재생에너지 구입계획 발표 ㅇ 지속적인 수질관리 및 재활용·인증된 천연 섬유만 포장에 사용 - 플라스틱 및 섬유 포장재의 63%가 재활용·재생 가능재료로 생산 ('20년 연례보고서)		

기업명	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(Cadence Design Systems)	주력사업	칩 설계, SW 제조
ESG 추진배경	ㅇ 주 고객사인 글로벌파운드리(Global foundries)는 노동인권을 강조하는 대표적 기업		
추진 내용	ㅇ 케이던스는 성별 및 인종과 관계없는 급여 평등 달성('19.7월)		

기업명	스콧 미라클 그로 (ScottsMiracle-Gro)	주력사업	정원관리용품 제조·판매
ESG 추진배경	ㅇ 메이저 고객사인 홈디포(Home Depot)는 연간 2.1%씩 탄소 배출량을 줄여 2035년까지 최종 50%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 - 자사 공급사에 친환경적 사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		
추진 내용	ㅇ 홈디포가 요구한 친환경적 사업 동참에 따라 포장에 사용되는 재활용 원료 활용비를 높이고 또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포장공법을 변경 - 포장공법 변경과 포장에 사용되는 재활용 용기 사용 확대('25년까지 재활용 용기 사용 15% 목표)		

기업명	휴렛-팩커드 (Hewlett-Packard)	주력사업	컴퓨터 HW
ESG 추진배경	ㅇ 고객사인 어도비 솔루션(Adobe Solution)과의 요구수준에 부응 - 어도비는 현재 직원 45%가 여성과 유색인종으로 구성 - 공정하게 임금을 받도록 보장하는 동일 임금(Pay Parity)제 도입		
추진 내용	ㅇ 미국 내 여성, 소수민족 소유 기업에 약 10억 달러 투자 - 투자기업에는 휴렛-팩커드에 준하는 ESG 규정을 갖추도록 요함. ㅇ 휴렛-팩커드는 슈퍼 컴퓨팅 데이터 센터용 최첨단 에너지 효율 설비 2,200만 달러 투자 - 연간 약 25,000미터 톤 탄소, 1,000만 달러의 에너지 비용 절감		
주요 성과	ㅇ 휴렛-팩커드는 '18년 MSCI ESG 평가에서 업계 유일 AAA 등급 획득		

2 일본

기업명	히타치 (HITACHI)	주력사업	전자기기, 장비, 부품 제조
ESG 추진배경	ㅇ 투자자로부터 사내 여성 비중 확대 압박 상승 - 특히, 이사회에 다양한 관점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임원 확대 압박 직면		
추진 내용	ㅇ 히타치, '30년까지 여성 임원 30%로 확대 추진 (現 10%) - '24년 여성 임원비율 15%로 제고 ㅇ 외국인 임원비율도 30년까지 30%로 높일 것을 발표(現 11.4%) ㅇ 여성 근로 환경 정비 - 채용 및 승진, 교육 프로그램 정비 - 인재 다양화를 위해 직무 내용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'직무형' 고용제도 도입을 추진 - 직무를 명확하게 하여 성별이나 국적에 차별이 없도록 조치		

기업명	헨켈 저팬(HENKEL Japan) *독일 본사소재	주력사업	세계 최대 접착제 제조사
ESG 추진배경	ㅇ Henkel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등의 문제를 다루는 'Alliance to End Plastic Waste (AEPW)' 설립에 참여하는 등 ESG에 활동에 관심 ㅇ 일본 제일생명(자산운용사)은 회사채가 적은 Henkel에 자금 조달을 제안 - 일본 제일생명과 제일프런티어생명이 공동투자*(약 74억엔)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* 제일생명 약 53억엔, 제일프런티어생명 약 21억엔 - 조달자금을 오직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제한 (세계 최초)		
추진 내용	ㅇ '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프레임워크' 신규수립 ('20.3월) - '25년 주요목표 : ① 포장재 100% 재활용, ② 석유가 원료인 플라스틱 사용량을 50%로 최소화, ③ 자연환경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완전히 제거 ㅇ '플라스틱 폐기물 감소'에 대한 투자 진행 ('20.7월) - 재활용 비율 제고 및 제조 과정 내 환경 오염의 부담이 적은 소재 사용 확대		

기업명	후지 오일 홀딩스 (Fuji Oil Holdings)	주력사업	식료품
ESG 추진배경	ㅇ 원료 조달을 둘러싼 인권침해 관련 사고 방지 추진		
추진 내용	ㅇ '책임 있는 카카오 원두 조달 방침' 수립 - 농업지도, 가계 대출 등을 통한 농가의 생활환경 개선 목표 - 원료 조달 카카오 농장에서 '25년 '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(WFCL) 제로, '30년까지 아동 노동 제로' 달성을 목표 - 농가 아동에 대한 교육 활동, 환경 조성 등의 활동 수행 - (참고) 코트디부아르에서 72개 농협, 41,000개 농가, 1,000개 농촌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중 ㅇ '책임 있는 팜유 조달 방침' 수립 - 팜유생산 관련 원료조달에서 판매까지 생산이력 100% 추적 * 현재는 착유공장까지 100% 추적 가능 - 공급망 개선을 위한 고충처리(Grievance) 메커니즘을 도입		

기업명	메이지(MEIJI)	주력사업	식품 제조(유제품 등)
ESG 추진배경	ㅇ 국제 사회로부터 글로벌 인권과 지구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조달 요구 확대		
추진 내용	ㅇ 향후 3년 간 중기경영계획에 ESG 경영을 포함시켜 그룹 단위에서 300억 엔을 투자하기로 발표 ('21.1월) ① 신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 - 규슈 공장(후쿠오카현)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가동('20.4월) ② 탈탄소 사회실현을 위해 포장지 재검토 - '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2017년 대비 7,700톤 절감 목표 - 음료 제품 80개 빨대 원료를 바이오매스 배합 소재로 전환('21) - 용기 경량화 추진('23년 신규 생산라인 도입 계획) ③ '26년까지 자사에서 지원한 지역의 농가에서 수확된 카카오 콩으로 100% 조달 방침 - 현재 8개국에서 'MEIJI KAKAO SUPPORT(MCS)' 농가 지원 활동 * 생산성이 높은 3,525개의 묘목을 농가에 배포하며 카카오 농장의 재생을 지원하는 한편, 마을 내 우물파기 활동 추진		

기업명	세븐&아이 홀딩스 (Seven & I Holdings)	주력사업	편의점 체인(세븐일레븐) 포함 종합 유통 서비스
ESG 추진배경	ㅇ 미국 편의점 점유율 3위인 '스피드 웨이*' 인수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'탈탄소'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 제기 * 스피드 웨이 : 주유시설을 같이 보유한 미 편의점 체인 - 미국 세븐일레븐 매출 中 주유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50%이나 스피드웨이의 경우 80% 수준 (전체 매출액이 3조엔 초과 예상)		
추진 내용	ㅇ '50년까지 일본 내 점포 운영에 따른 실질 CO_2배출량 제로 목표 - 태양광 패널,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- 플라스틱 봉투 유료화('20.7월) 및 바이오매스 배합 노력 - '50년까지 천연 소재 용기 100% 목표 - '50년까지 음식 쓰레기 배출량 '13년 대비 75% 감소 목표 ㅇ '21년 2분기부터 임원 급여에 CO_2 감축량 반영 - CO_2 배출량 2% 감소시 5% 인상, 2%이상 증가시 10% 인하 ㅇ 미국 세븐일레븐은 '27년까지 매장 250개소에 전기자동차(EV) 급속 충전 설비를 도입 계획 - 세븐 일레븐 북미 점포수는 총 1만 4천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'친환경 생활 인프라' 구축 추진		

3 프랑스

기업명	에어버스(Airbus)	주력사업	항공기
ESG 추진배경	ㅇ'19년 런던 헤지펀드 TCI(The Children's Investment Fund)는 에어버스 등 투자기업이 CO_2 배출량 및 배출 감소 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기업의 임원 처벌 계획 발표 - TCI는 "배출량을 공개하지 않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대차 대조표를 공개하지 않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"고 주장		
추진 내용	ㅇ 에어버스는 이후 환경 데이터*를 공개하기 시작 * 에너지·전력 소비량, CO_2 배출량, 물 소비량, 쓰레기 배출량 등 ㅇ '35년까지 수소로 운영되는 기후중립 비행기를 생산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소개('20.9월)하며 친환경 비행기 개발에 박차 - 3개의 모델 소개, 최대 200명의 승객을 3,700km 운송 가능 ㅇ 단, 항공업은 현재 기술로 다른 산업과 다르게 완전한 기후중립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힘.		

첨부 2. 기존 사업재편 및 신규 사업기회를 발굴한 사례

1 오일 메이저

국가	영국	기업명	브리티시 페트롤리엄(BP)	주력사업	석유개발 및 정유
ESG 추진배경	ㅇ 2050년 순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, 그린수소 생산 등 저탄소 비즈니스로 사업방향 재편				
추진 내용	ㅇ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(BP)은 석유화학사업부를 이네오스에 50억 달러에 매각 ㅇ 해상풍력 사업 추진 - BP는 EnBW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영국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 - 제4차 해저(Seabed)임차 입찰에 참여하여 1.5GW 발전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 2개 낙찰성공 (총 3GW) ㅇ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- 7X Energy로부터 美태양광 발전 프로젝트(9GW)를 매입 ㅇ 그린 수소생산*을 위해 덴마크 기업 Orsted와 협업 추진 ('20.11월) * 재생에너지로 물분해(electrolysis)를 통해 수소생산 - 생산한 수소는 독일 링겐 정유시설에서 사용예정				

국가	미국	기업명	세브론(Chevron)	주력사업	석유화학 및 정유
ESG 추진배경	ㅇ 글로벌 ESG 기조 강화에 따라 탄소배출저감 활동에 주력				
추진 내용	ㅇ '28년까지 CO_2 집약도를 오일 생산에서는 40%, 가스 생산에서 26% 감소 추진. 메탄가스 배출은 53% 감소 목표 발표('21.3월) ㅇ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대신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에 '28년까지 30억 달러 투자 계획 - 20억 달러는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, 재생에너지 및 오프셋(offset) 활동에 7억 5천만 달러 투자 예정 - 3억 달러를 저탄소 기술 펀드에 추가 투자 예정으로 전체 저탄소 기술 펀드 투자액은 5억 달러임. * 탄소 포획 기술 및 저탄소 건축 자재를 개발한 스타트업 블루 플래닛(Blue Planet)에 투자 발표 ㅇ 슐룸베르거(Schlumberger) 및 MS와 파트너십을 맺고 캘리포니아에서 바이오에너지 탄소포획 및 저장 기술 (BECCS)* 프로젝트 투자 계획 발표 * 바이오매스를 재생 가능한 합성 가스로 변환하며, 이는 연소기에서 산소와 혼합해 전력을 생산. 이 공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99% 이상 포집				

국가	영국/ 네덜란드	기업명	로열 더치 쉘 (Royal Dutch Shell)	주력사업	석유화학 및 정유
ESG 추진배경		ㅇ 글로벌 ESG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'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ㅇ 본사가 소재한 네덜란드 법원에서 '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'19년 수준대비 45% 감축하라고 판결 ('21.5월) - 쉘의 '30년까지 탄소배출량 20% 감축 목표보다 한층 강화			
추진 내용		ㅇ '석유·가스' 회사가 아니라 '에너지 회사'로써, 연간 20~30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- 투자금 중 80%를 전력 부문에 집중하며 '전기회사'로 탈바꿈 추진 * 영국 전기가스 공급사인 First Utility와 유럽 최대 전기차 충전소 업체인 네덜란드 소재 New Motion 인수('17) - 향후 15년 이내 세계 최대의 전기회사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, 풍력이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힘. ('19) * 프랑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업체 에올피(Eolfi) 인수('19) ㅇ 석유와 석탄 비중을 줄이면서,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에 중점 투자 - 네덜란드 북해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(NoordzeeWind) 건설 - 미국, 동남아, 오만 등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구축 - 영국과 유럽,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 전개			

국가	미국	기업명	엑슨모빌(ExxonMobil)	주력사업	석유화학 및 정유
ESG 추진배경		ㅇ 투자자들이 석유에서 저탄소 에너지로 사업의 중심축 이동 요구 - 미 행동주의 투자사인 엔진넘버원은 엑슨 모빌에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를 요구			
추진 내용		ㅇ 사내 Low Carbon Solutions 신사업 부서를 신설, 저탄소기술 상용화를 위해, '25년까지 30억 달러 투자 계획 ('21.2월) · 전 세계 20개 이상의 신규 탄소포집·저장 프로젝트 추진예정 * 와이오밍 주에 위치한 La Barge에 연간 700만 톤의 탄소 포집이 가능한 CCS 시설 보유 ㅇ 바이오 연료 기술 개발 - 조류(Algae)와 셀룰로오스 바이오 매스를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 진행			

2 내연기관차

국가	미국	기업명	제너럴모터스(GM)	주력사업	자동차 제조
ESG 추진배경		ㅇ 글로벌 투자자 ESG 요구가 강화되는 가운데, GM은 전체 탄소 배출량 중 75%가 판매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로 인해 발생함에 따라, 배기가스가 낮은 차종으로 주력모델 변경 필요 *GM은 2020년 글로벌 자동차완성업체를 상대로한 ESG 평가결과 MSCI B등급, REFINITIVE 85점, S&P 다우존스인덱스 30점			
추진 내용		ㅇ '3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하고 전기자동차만 생산하는 기업으로 변화를 위한 탄소중립 계획을 담은 친환경 정책 발표('21.1월) - '25년 30종의 신형 전기차 출시, 판매차량의 40%를 전기차로 전환 - '30년까지 미국 공장, '35년까지 글로벌 공장을 100% 재생 에너지로 가동 - '35년부터 휘발유, 경유 차량 생산 중단(상업용 대형 트럭은 제외) - '40년 자동차, 공장의 탄소 제로 배출 달성 ㅇ '20년부터 5년간 전기차 관련 개발에 270달러 투자하여, 배터리 가격을 60%까지 낮추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 - 배터리 개발 위해, LG에너지솔루션과 오하이오주에 23억 달러 투자			

국가	프랑스	기업명	르노(RENAULT)	주력사업	자동차 제조
ESG 추진배경		ㅇ 투자자들의 ESG 요구 강화 ㅇ 프랑스 국내 및 EU 차원에서 ESG 관련 다양한 규제 추진 - 프랑스에서는 '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'에 관한 법률'('15) 제정으로 민간 투자회사가 ESG 요소를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시, 반영하고 이를 연간보고서에 명시 의무화 → 투자 대상 기업에게 관련 자료제출 요구 가능			
추진 내용		ㅇ 르노 그룹, 환경을 위한 중기 전략 플랜('17~'22) 발표 ('18.3월) - '전기 자동차', '새로운 모빌리티', '순환경제'라는 3 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기업생산의 친환경적 전환을 약속 - 특히 연비개선, 전기로의 주요 동력원 전환, 'Off-cycle' 기술 개발, 생산 및 단종(EOL), 이 4 가지 영역을 발전시켜 해당 영역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80%까지 줄이겠다고 설명 ㅇ 전기자동차, 미래 주력 사업으로 부상 - '30년까지 자사모델 최대 90% EV로 전환계획 * '25년까지 EV모델 10종 출시			

3 기타 분야

국가	독일	기업명	RWE	주력사업	전력, 에너지
ESG 추진배경	ㅇ 독일정부 탈석탄 선언('20) - 독일 정부는 '38년까지 독일 내에서 석탄(갈탄)화력발전 발전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확정('20)				
추진 내용	ㅇ RWE는 '4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업전략 대폭 수정 - '40년까지 화석 에너지 중심 전력 생산에서 완전히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생산한다고 밝힘 - 풍력 발전 단지, 태양열 시스템 및 에너지 저장 솔루션에 집중 투자 계획 · 풍력·태양광 프로젝트 48개 추진 중 : 풍력 44개(해상11,육상33), 태양광 4개 * (풍력) 세계 최대 규모의 영국 북해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'소피아(Sofia)' 건설 프로젝트(1.4GW 규모) 추진 중('26.4Q 완공 목표, 총 투자금액 35억 유로) * (태양광)美 조지아 지역에 건설 중인 '히커리 파크 태양광(Hickory-Park-Solar)' 프로젝는 '21년 말 가동 예정으로 생산된 전기는 Georgia Power에 공급 예정 (195.5 MW 규모의 태양광 발전과 80 MW의 배터리 저장시스템을 결합)				

국가	일본	기업명	윌스테이지 (WILLSTAGE)	주력사업	부동산컨설팅, 수질정화사업
ESG 추진배경	ㅇ 시가(滋賀)은행은 참신하고, SDGs달성에 공헌하는 사업 대상으로 우대금리 융자 제공 (사회적과제 해결 사업 지원) - 윌스테이지는 시가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, 독자적인 수질정화기술 적용 분야 확대방안 모색				
추진 내용	ㅇ 어류의 육상양식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회사 아쿠아스테이지 설립('17) - 독자적인 수질정화기술을 응용하여 바다가 없는 시가현(滋賀県) 내륙에서 '완전밀폐순환형 육상양식 기술'을 개발 · 수조의 물을 교체하지 않고도 약 1년간 양식이 가능한 정화 시스템 개발 * 수도요금은 일반적인 육상양식의 1/3로 절약 · 박테리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수조 내 사료 찌꺼기나 물고기의 배설물 등이 없는 깨끗한 물을 순환, 배수 불필요 · 완전 유기 양식으로, 깨끗한 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고, 해상 양식과 비교해서 2배 정도의 성장속도를 실현 ㅇ 현재 독(毒)없는 복어 약 2,000마리 시험양식 중 · 박테리아를 이용해 '복어 독(毒)'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성분을 수중에서 제거함으로써, 양식에 성공할 경우 '독없는 복어'를 시가현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판매할 예정				

국가	프랑스	기업명	까르푸 (Carrefour)	주력사업	식품 유통
ESG 추진배경		ㅇ 대형 식품 유통 산업에서도 ESG 관심도 증가 - '더 많이', '더 싸게'의 전통적 대형마트 모델 탈피 필요성 제기			
추진 내용		ㅇ '18년 5개년 전략 발표하면서 '식품의 전환' 플랜 제시 - '신선함', '로컬', '유기농' 키워드 중심의 전환 - 소비자와 가까운 거리의 중소형 로컬 생산자와 거래 확대 ㅇ 기존 가격경쟁력 위주 홍보에서 'Carrefour 품질 인증'을 득한 유기농·윤리적 생산 로컬 제품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 ㅇ 식품의 '민주화' 실현 위한 매장 모델 전환 - 교외의 초대형마트 모델 → '소비자 가까운 곳에서', '차이 없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', '합리적 가격으로', '누구나 접근이 가능한' 유형의 매장 확대 - 도시 외 지방에서 접근가능성 높인 소규모 매장 수 확대		

첨부 3. ESG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스타트업 성장자본으로 활용한 사례

국가	미국	기업명	바이탈 팜즈(Vital Farms)	주력사업	동물복지 계란, 유제품

사업모델 요약	ㅇ '07년 창업자 Matthew O'Hayer는 20마리의 로드아일랜드 레드 암탉을 구입하여 27acre의 텍사스 오스틴 농장에서 동물복지 환경에서 산란한 계란 판매 개시 - 이후 유제품, 가공식품으로 비즈니스 확대 ㅇ '깨어있는 자본주의(conscious capitalism*)'를 추구하며, 225개의 소규모 가족 농장(동물복지농장)과 협력을 통해 판매 제품 생산 *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패러다임 -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, 그는 기업의 운영 철학을 모색하기 시작함. 사업을 통하여 부를 창출하는 대신, 직원, 고객, 이해관계자와 환경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기로 방향 설정 - 농장의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유사한 농장철학을 고수하는 소농장과 협력형태로 사업모델을 확장
자금 유치내역	ㅇ 깨어있는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 대규모 투자유치보다 필요한 자본을 조금씩 조달한다는 전략하에 1~2년 주기로 임팩트 자본유치 - SJF Ventures에서 $2.3M('13), Arborview Capital에서 $2.25M('14), Sunrise Strategic Partners 등으로부터 $11.1M ('17) 등 유치 ㅇ '20년 나스닥에 IPO(기업공개상장)으로 $2억 유치에 성공
성공요인	ㅇ 윤리적 식품기업으로 동물복지를 통해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고, 장기계약을 맺은 협력 소농장에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어필 - 미국 내 농장에서 방목하여 생산한 계란 브랜드 중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 ㅇ (참고사례)'15년 조류 독감 여파로 계란 공급이 급감하자, 미국 농가에서 생산량을 늘려 '16년에는 계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 → Vital Farms는 협력 농장이 생산을 중단하지 않도록 비용 지급 - 단기적으로 기업의 현금 흐름에 큰 타격이 있었지만,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점에선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결정

국가	캐나다	기업명	카본큐어 테크놀로지 (CarbonCure Technology)	주력사업	클린테크 (탄소포집활용)
사업모델 요약	ㅇ 다른 산업에서 포집한 CO_2를 콘크리트 제조 공정에 넣어 콘크리트 혼합에 필요한 시멘트 양을 크게 줄이면서, 대기에서 CO_2를 영구 감축 - 주입된 CO_2는 시멘트의 칼슘 이온과 반응하여 탄산 칼슘을 형성하여 효과적으로 탄소를 광물화하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임.				
투자자금 유치내역	ㅇ '11년 6월, 캐나다 앨버타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인 ERA(Emissions Reduction Alberta)로부터 US$ 337만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초기 사업을 전개 - 이후 BDC Canada(캐나다 국영 국가개발은행)의 산업, 클린, 에너지 및 테크놀로지 벤처 펀드(Industrial, Clean and Energy Technology Venture Fund)가 주도한 시리즈 B단계에서 US$ 332만을 추가로 유치하며 사업 고도화 ㅇ 클린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2150, 아마존 기후 서약 펀드(Amazon's Climate Pledge Fund), 마이크로소프트 기후 혁신 펀드(Microsoft's Climate Innovation Fund)와 더불어 빌게이츠의 에너지 투자 펀드(Breakthrough Energy Ventures) 등을 통해 현재까지 약 US$ 1,100만 투자 유치에 성공				
성공요인	ㅇ 기후테크(CO_2 배출량을 줄여, 지구온난화의 해법을 연구하는 기술) 기업으로써, 콘크리트 제조공정과정에서 CO_2를 활용해 콘크리트 강도 향상과 탄소 배출 저감 효과*에 주목 * 콘크리트 제조시 발생하는 CO_2의 양은 전 세계 CO_2 배출량의 7%를 차지				

국가	독일	기업명	포사니스(Fosanis)	주력사업	디지털헬스(암환자용 앱)
사업모델 요약	ㅇ 독일 내 최초로 개발된 암환자 치료 보조 앱(Mika)으로, ①증상 일지 기록(담당의 모니터링용), ② 전문가로부터 관련 의학정보(치료법 등), ③심리적 안정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 - 의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처방하는 앱으로, 사용료는 건강보험 회사에서 부담				
투자자금 유치내역	ㅇ 독일 임팩트 투자 전문 VC인 Ananda Impact Ventures와 IBB Ventures, Evodia를 통해 자금 유치(수백만 유로)에 성공 ('21.3월)				
성공요인	ㅇ 사회적 문제를 해결 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음. - 독일 내 매년 49.2만 명의 암환자 발생 - Ananda는 포사니스의 앱(Mika)이 아주 간편하고, 앱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,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힘.				

국가	프랑스	기업명	바라프 그룹 (Varappe 그룹)	주력사업	경력 단절 및 소외계층 대상 교육/구직 서비스
사업모델 요약	ㅇ 장기 실업, 경력 단절 및 사회적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'92년 설립. 프랑스 남부(론알프 지역) 기반 - 3가지 유형(인력교육/파견, 폐기물/하수처리/재활용, 친환경 건축)의 산하 기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				
투자자금 유치내역	ㅇ Phitrust로 부터 1차 투자자금 유치('07): 70만 유로 - Phitrust 투자회사는 설립부터 사회적 연대 경제활동 지원 목표하에 Social Impact investing 부서 마련, 장기적 관점에서 '소셜 임팩트' 및 '환경 임팩트' 관련 투자처를 물색(프랑스 ESG 투자 시초) - Phitrust는 투자뿐만 아니라 적극적 주주로 활동하면서 Varappe 그룹 내 다양한 프로젝트의 구조를 탄탄하게 설계하는데 법적 조언 및 비즈니스 관점 제시 등 많은 지원 제공 ㅇ 2차 투자자금 유치('20): 420만 유로 - Phitrust, Amundi, BNP Paribas Asset Management, France Active의 재투자 결정 - ESG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면서 'S' 영역을 강화하는 '포용적 비즈니스(Inclusive Bisiness)' 모델이 주목받기 시작 * 불평등과 신빈곤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는 현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됨				
성공요인	ㅇ Varappe는 15년 전 매출 300만 유로의 기업 그룹에서 현재는 4,00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중견 기업으로 성장 ㅇ 경제 소외 계층의 사회 편입이라는 큰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, 실제로 성공적 구직으로 이어지는 결과 등이 매력적인 투자 요인으로 작용 - '07년 기준, 300 여 명을 교육하고 625개 일자리에 투입시킴으로써 73%의 성공적 이직률 기록 -> '19년 기준, 5,300명 교육, 일자리에 투입, 80%가 이직에 성공				

국가	영국	기업명	그립에이블 (GripAble)	주력사업	재활기기 (디지털 핸드그립)
사업모델 요약	ㅇ 뇌졸증, 관절염, 뇌성마비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손과 팔 재활운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핸드그립(Hand Grip)을 개발 -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 (가정용) - 그립을 누르는 활동을 모바일 앱을 통해 근력, 반사작용 등 다양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 - 동기부여를 위해 게임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연계한 재활운동 지원				
투자자금 유치내역	ㅇ Triple Point社가 운영하는 소셜 임팩트 펀드인 Impact EIS로부터 52.5만 파운드 유치 ('19) ㅇ (참고사항) 동 펀드는 1,000여개의 기업을 선정 → 150여개 기업과 면담 → 50개 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 → 자사 투자위원회에 15개 제안서 상정 → 최종적으로 6~10개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				
성공요인	ㅇ 사회공헌 가능성과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음. - (사회공헌) 뇌졸중, 관절염, 뇌성마비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재활활동 지원 - (첨단기술력) 조정 가능한 그립 압력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캡처하며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(휴대가 가능해 집에서도 사용)하고 맞춤형 디지털 게임과 연계하여 사용자 동기 부여				

작 성 자

뉴욕무역관	임소현
도쿄무역관	김승호
런던무역관	정윤서
로스앤젤레스무역관	Joyce Choi
시카고무역관	배성봉
실리콘밸리무역관	이지현
오사카무역관	안재현
파리무역관	곽미성
프랑크푸르트무역관	박소영
토론토무역관	이희원
통상협력실	이정선

Global Market Report 21-026

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

발 행 인 ▌ 유정열
발 행 처 ▌ KOTRA
발 행 일 ▌ 2021년 8월
주 소 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(06792)
전 화 ▌ 02-1600-7119(대표)
홈페이지 ▌ www.kotra.or.kr
문 의 처 ▌ 통상협력실 (02-3460-7509)
I S B N ▌ 979-11-6490-971-1 (95320)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Global Market Report

kotra
Korea Trade-Investment Promotion Agency